

성금요일 침묵예배 기획(안)

Worship director 정한걸

개요

하나님 아들의 죽음과 대속의 은혜,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
성금요일 오롯이 주목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와, 지금의 현재 시점으로 재구성 된다.
이 때, 절제 있게 준비된 상징과 이미지를 활용하여 더욱 생생한 현장을 재현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말씀의 구성을 따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면하게 되고
Text 를 넘어선 감각적인 경험과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구속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된다.

내용

침묵예배 - 촛불 사용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 진행상 불필요한 부분은 절제와 침묵

Via Dolorosa 십자가의 길

(1안)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14개 장소

(1안 선택시에도 Tenebrae 예식 포함)

* 1, 2, 5, 8, 10, 11, 12, 13, 14처소는 성경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3, 4, 6, 7, 9처소는 전승에 따른 구성으로 예루살렘에 성지순례시 볼 수 있는 순례의 길

Tenebrae 라틴어로 ‘어둠’ 또는 ‘그늘’ 이라는 뜻으로 17세기에 근거를 둔 예식

(2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차례로 읽으며 촛불을 하나씩 끈다.

마지막 촛불이 꺼지면 어둠과 침묵 속에서 기도 한다.

예식은 독서와 응송으로 구성하게 된다.

부활주일 새벽까지 어둠과 침묵이 지속된다.

전승에 따른 장소를 제외한 구성 그리스도의 고난

(3안) 9개의 장소와 Tenebrae 예식

참여하는 예배

부서별, 세대별 참여자들을 선별하여 예식의 각 부분 담당자로 세우고 준비함

(인도자, 점화자, 악기 연주자, 각 장소에 따른 담당자 or 가상칠언 각각 담당자 등)

* 기도문과 찬양의 구성은 각 교회에 맞게 사용